재정 60% 상반기 집행 일자리 창출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내년도 업무 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로 투자 확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

희망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금리·보험료 혜택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내놓은 내년도 업무 보고 내용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올해 급격한 경기 회복으로 경제 지표가 대부분 경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나 고용만은 내년에도 쉽사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확장적 정책기조·서비스 선진화 추진=재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을 봐가면서 거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가 조기 집행된다.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시됐다. 재정부는 의약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음식점의 상차림 방식과 같은 표준지침을 제시하는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현금지원 기준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총 3조5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주식 교부 기준 완화를 통한 벤처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물가·부동산 안정, 공공근로 유지=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 성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유 세제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실시되며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2만5천명, 공공 부문 1만2천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즉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올해 본예산(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되는 셈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되며 보금자리 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금융 우대=금융위원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를 예로 들었다.

3명 이상 자녀를 보유한 가구에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자녀 수에 따라 교육 및 생존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자녀교육비 저축 목적용 펀드의 활성화도 거론됐다.

금융상품을 통해 국민이 친환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 차량 소유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경차 보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해외예금 신고제 검토, 재정성과관리 강화=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감면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을 중심으로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를 상시 조사하고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협의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고자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2순환도로 호남고속도 연결

호남고속도로 문흥 분기점이 17일 본격 개통됨에 따라 광주 제2순환도로 전구간(37.66㎞)이 착공 17년만에 전부 연결된다. 문흥분기점이 연결돼 제2순환도로를 통해 대전과 순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게 됐다. /위직량기자 jrwi@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사업설명회가 1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유니버시아드 유치 위원 200여명이 대회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서 FISU 컨퍼런스 매년 열린다

U대회 사업 설명회…각종 스포츠 이벤트도 개최

내년부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와 관련, 국제대회 경기운영 노하우 축적을 위한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

또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FISU 컨퍼런스가 오는 2015년까지 매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사업설명회를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갖고, 대회 준비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 안으로 U대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내년 초 1단계로 100여명 규모의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조직위는 내년 6월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할 U대회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개최 전까지 FISU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해 준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또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현안을 추진한다.

국제대회 개최, 경기운영 노하우 축적을 위한 국제대회도 잇따라 열린다. 시는 2010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2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2015년 전까지 종목별 세계 선수권대회를 치러질 예정이다.

세계주니어 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는 2010년 10월6일부터 14일까지 빛고을 체육관 등지에서 열리며, 선수 임원 등 24개국 1천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2010년 6월 개막하는 세계장애인 탁구선수권 대회는 전세계 50개국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또 U대회가 열리는 2015년에는 17개 종목의 대학스포츠경기는 물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을 뽑는 총회(General Assembly), 전세계 대학 총·학장회의(Rector's Forum)가 동시에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U대회는 오는 2015년 7월초 개막할 예정이며, 육상, 농구, 축구 등 17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과정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U대회 지원법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을 다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이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되지만 않는다면 2015 광주U대회 지원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국회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5 광주U대회 지원법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문방위는 17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광주U대회 지원법 등을 심의한 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2015 광주 U대회 지원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 주장대로 23~2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2015 광주 U대회 지원법은 법사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위원장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라는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4대 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예산안과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광주U대회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갈 수 있는 개연성도 남아있다. /임동욱기자 tuim@